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 5급 공채, 기존 응시번호와 시험장소 모두 바뀌나?

- 응시번호는 그대로... 응시표 재출력해야
- 기존 시험장소 변경... 장소 재배정 공고

지난 2월 29일 예정됐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제1차시험이 잠정 연기되면서 기존에 부여됐던 응시번호와 시험장소가 그대로 사용되는지에 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1주일 앞둔 지난 2월 21일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 시험장소 공고와 응시표 출력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험 닷새 앞두고 연기한다는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시험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는 2월에 부여됐던 응시번호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출력한 응시표의 응시번호와 시험장소가 차후에도 유효한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응시번호는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시표는 추후 공고되면 새로 출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시번호는 동일하지만, 기존 응시표에는 이전의 시험일정이 인쇄돼 있기 때문에 자칫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시번호는 변동이 없지만, 이전에 공지된 시험장소는 바뀌게 된다. 시험장소를 새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5급 공채 시험이 가능할 경우 다른 시험들도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몰려 동일한 시험장소 확보가 쉽지 않아 재배정하게 된다.

(출처/법률저널)